

회원대학 소식

대학교육

뉴스레이더

Higher Education 2011_11+12

| 부산대학교 |

부산대와 일본 규슈대는 공동으로 양 대학 신입생 각 10명씩을 선발해 한일해협권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한일해협권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부산대와 일본 규슈대를 오가며 진행됐다.

첫 주는 '캠퍼스 부산'으로, 규슈대 학생들이 한국에 입국해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부산대 학생들과 기숙사에 머물며 <한국어>, <동아시아의 문화와 경제> 등 강의를 들은 뒤, 삼성중공업·대우중공업·포스코등 기업체 방문, 부산·경주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둘째 주, 양 대학 학생들은 일본 규슈대로 이동해 강의 및 인턴십, 문화체험 등으로 진행된 '캠퍼스 후쿠오카'에 참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 체결된 부산-후쿠오카 대학간 컨소시엄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부산대와 규슈대가 '교환학생(또는 학생 교환)'이라는 개념을 넘어 양 대학 학생들을 '공동으로 교육'시킨다는 목표로 마련하게 됐다. 향후 참가 인원을 100명까지 확대하고, 도서관 상호개방, 직원 교환 근무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 목포대학교 |

국립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가 오는 9월 8일(목)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뜻깊은 '사랑의 연탄나눔 자원봉사'를 갖기로 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우리지역의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가족의 정과 따스함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목포대학교 총장 및 교무위원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추진하였다.

이날 연탄배달 봉사에는 목포대 고석규 총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관내 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등 소외계층 10가정을 위문하고 사랑의 연탄2,000장을 배달했다. 위문대상 10가구(무안군 관내 5가구, 목포시 관내 5가구)는 각각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과 목포복지재단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본 행사와 관련하여, 고석규 총장은 "모두가 기다리는 추석명절이지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가족 없이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다"며, "조그만 정성이지만, 그 분들이 우리 이웃의 따스한 정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외롭지 않게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봉사하는 대학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대학교는 이번 행사 외에도 교직원 자원

봉사단을 지난해 6월 발족, 매월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장애우 및 노인들의 돌봄, 김장나눔봉사, 재활용품품바자회, 환경보호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가톨릭대학교 |

제3차 '잘 가르치는 대학' ACE 포럼이 23일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인터내셔널 허브관에서 개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사업을 시작, 전국 11개 대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후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협의회(회장 김영길/한동대 총장)를 구성하였다. 올해 5월에는 2차년도 ACE 11개교가 추가로 선정되어 모두 22개 대학이 됐다.

ACE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로 구성된 ACE 협의회에서는 ACE 포럼을 개최하여 대학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모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여대가 주관한 제1차 ACE 포럼에서는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구상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차 ACE포럼은 전공교육, 고등교육의 선도 모델을 정립하고자 신라대학교 주관으로 개최된 바 있다.

가톨릭대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처음으로 22개 대학이 참여하는 만큼 그 규모가 훨씬 확대되었다. 이번 포럼은 '비교과 교육과정과 교육

의 질 관리'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며, 대학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개최 행사에 이어 총 6개 분야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세명대학교 김계수 경상학부장의 '비전설계', ▶아주대 임규연 교수의 '아주대학교의 질 관리 체제 선진화', ▶대구가톨릭대 이준 교수의 'CU-Culture Calendar', ▶서울시립대 이익주 학사교육원장의 '인증을 통한 교육관리',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학습센터장의 '학습공동체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울산대 이성균 교무부처장의 '울산대학교의 지속적 자율순환형 교육품질 개선체계(CQSSIS)' 등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 전북대학교 |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미래주요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풍력산업 분야의 '파워 엘리트' 양성에 나섰다. 전북대는 항공우주공학과와 토목공학과가 최근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원하는 2011년도 수요맞춤형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공동으로 신청한 '풍력터빈 및 해상구조물 인력양성 기초트랙' 과제가 최종 선정돼 이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4년간 총 20억여 원을 지원받는 이 사업은 에너지산업계의 인력 수요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풍력터빈 및 해상토목 분야의 기업들이 원하는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묶은 '트랙과정'을 통해 항공우주공학과 및 토목공학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대 '풍력터빈 및 해상구조물 인력양성사업단(단장 항공우주공학과 유기완 교수)'은 전북도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부설 재료연구소 등 3개의 정부기관과 (주)테크항공, (주)헤인이엔씨, (주)유로코리아, (주)항도엔지니어링, (주)큰길 등 5개의 기업과 연계해 풍력터빈 및 해상토목 분야 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체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참여기관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과정 개편과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트랙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과 인증자격을 부여하고 참여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취업률 또한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풍력터빈 및 해상구조물 인력양성 사업단 유기완 단장은 "한국의 풍력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산 기술력 확보와 풍력산업 분야 우수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이번 인력양성사업은 전북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내 풍력터빈 및 해상구조물 관련 산업의 진척을 이루고, 이에 따른 우수인재 수급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부경대학교 |

부경대학교(총장 박맹언)가 10월 3일부터 6일간 제2차 세계대전 원폭투하지인 히로시마에서 'UN평화 국제학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부경대 교수, 학생 등 국제학술공동세미나 참가자 90여명은 10월 3일 오후 6시 부산항 5부두에서 부경대 실습선 가야호(선장 김민석 교수·1,737톤)를 타고 출항했다.

부경대 수산과학대학(학장 이춘우)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학생들과 일본학생들이 수산과학분야 및 국제평화 학술활동을 통해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국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10월 6일 히로시마대학을 방문, 수산과학 분야 논문 포스터를 상호 발표하며 국제평화를 위한 한·일 양국 대학생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가야호 선상에서 열리는 부경대 이근우 교수(사학과)의 '야스쿠니신사 문제와 일본인의 종교관', '전쟁과 평화 그리고 독도' 등 UN평화 특강을 비롯 세토나िका이 수산연구소 및 평화기념박물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부경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 진행하는 석사과정 국제수산과학 협동과정에 재학중인 세계 20개국 20명의 학생이 참가해 국제학술교류활동을 함께한다. 이춘우 학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일 대학생들이 수산과학기술과 평화에 대한 인식을 교류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군산대학교 |

군산대학교(총장 채정룡)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에 따른 자체개혁을 위해 10월 14일 총장 직속 ‘대학 선진화 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총장 직속의 대학 선진화 추진체제를 통해 각종 교육지표를 대폭 향상시키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구조개혁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기획단 구성은 군산대학교의 운영체제에 혁신을 가져와 대학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내 신망이 두텁고 개혁성을 갖춘 교원 21명과 선진화 과제 및 주요 지표 관련 행정부서 과장 4명 등 25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조개혁, 교무·학사 선진화, 교육·산학협력 선진화, 재정·회계 운영 선진화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자체 구조개혁방안을 창출하게 된다.

4개 분과 위원회에서는 ▶〈구조개혁〉총장 직선제 개선, 단과대 확장 및 학과(부)장 공모제 도입, 단과대학 조정, 학과 개편, 학과 정원 조정 및 특성화 ▶〈교무·학사선진화〉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교원업적평가체제 선진화, 교원임용 방식의 다양화, 학사 운영 선진화 ▶〈교육·산학협력 선진화〉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연구·산학협력 강화 ▶〈재정·회계 운영 선진화〉기성회회계 제도 개선 및 운영선진화, 대학 재정 확충 및 효율화,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등의 선진화 과제 및 교육지표 향상을 통해 새만금 선진대학 특성화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군산대학교는 기획단을 통해 주요 교육지표별 목표를 조속히 정립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2012년 1월까지 자체 구조개혁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중 자체 구조개혁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제2의 발전계기로 삼고자 대학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집중 논의 및 소통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기획단 운영에 막차를 가할 계획이다.

| 서울여자대학교 |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이광자)는 오는 10월 26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바롬인성교육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50주년기념 바롬교양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부교육중심대학과 21세기 교양교육 선진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학교양교육 선진화의 방향성과 서울여자대학교만의 독특한 인성교육인 바롬 인성교육의 역사적 전통과 선도적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여자대학교의 5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여자대학교가 지켜온 교양교육과 바롬인성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광자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와 김한중 연세대학교 총장의 축사에 이어 이봉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장이 개회사

를 전하고, 김신일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와 성균관대학교 손동현 교수가 기조강연을 진행하였다.

1, 2부로 나뉘어 각 전공의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논평자로 나서 진행되는 학술대회 2부는 세션 1과 2로 나뉘어 세션 1에서는 서울여자대학교의 교양교육의 특성화에 대해 토의하고, 세션 2에서는 서울여자대학교 바롬인성교육의 과거, 현재와 미래

를 논의하며 인성교육과 글로벌 인재양성, 앞으로의 바롬인성교육의 선진화 방향성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김환식 과장과 인적자원연구소의 공선표 대표 등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해 서울여자대학교의 바롬인성교육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기사를 기다립니다.

회원 대학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 회원대학 소식게재 신청: research@kcue.or.kr

기사를 보내주시면 회원대학 소식에 게재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학교육 홈페이지 주소: <http://magazine.kcue.or.kr>

대학교육에서 고등교육의 다양한 이슈와 정보, 대학소식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육 홈페이지 - '지난호 보기' 메뉴에서 지난 대학교육 원고 및

기사를 pdf와 e-book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